

2024 자신학회 세미나 2강

# 중세 가톨릭 신학의 정체성 형성

2024년 5월24일

최종원 (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)

# 이노센트 3세의 시대

- 이노센트 3세(1198-1216재위) : 투쟁을 통해 번영의 시대
  - 능력과 업적에서 가장 탁월한 중세 교황
  - 이노센트 3세와 13세기 교황들 하에서 중세교회는 영적, 지적, 세속적 권위 정점
  - 교황청 조직 완비 통하여 성속의 권위 확대
  - 교회법의 체계화와 발전 지속으로 그레고리8세 때 <교령집>(1234)으로 절정
  - 탁발수도회가 활기차고 신선한 영적 지도록 발휘
  - 이단의 출현 - 교황의 영적, 세속적 권위에 대한 도전 (민중신앙에 대한 대응)
  - 세속군주들과의 잦은 격렬한 투쟁 - 교황의 승리
  
- 교황군주제(Papal Monarchy) 실현
  - 로타리오 디 세니(Lothario di Segni) 37세 교황 선출, 파리와 볼로냐 대학 수학
  - 교황의 정치적 권력 극대화 시도 - 절대군주권(absolute power) 추구한 정치가
  - 교회의 도덕적 개혁과 내부 조직 개선 심혈
  - 기독교 세계의 일치와 번영 위해 유럽의 군주들이 교황의 기독교 세계의 최고지배자이자 재판관으로 인정해야만 한다는 주장
    - 영적인 개혁을 위해 세속권의 필요성 인식, 성공적으로 획득
  - 예루살렘 성지 회복과 교회 개혁 위해 중세의 가장 영향력 있는 공의회인 제4차 라테란 공의회 소집(1215)

## 제4차 라테란공의회(1215)

- 교회개혁에서 이노센트3세가 성취한 가장 항구적인 업적
  - 400여명의 주교, 800여명의 수도원장, 유럽의 대부분의 대군주 대표들 참가.
  - 회의의 목적: 성지의 회복과 교회의 개혁 (이노센트는 십자군 파병 전에 사망)
  - 동방기독교(헬라) 성직자들은 불참. 따라서 공의회 결과도 수용하지 않음.
  
- 개혁법령 제정
  - 이단 논박 위해 가톨릭의 기본교리 재천명
  - 성체성사(Eucharist)에서 빵과 포도주의 본질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화체설(Transubstantiation) 확립
  - 가톨릭 교도들이 적어도 1년에 한 번 사제에게 고해성사 하도록 규정.
  - 교회는 시죄법에 의한 판결 참여 금지
  - 매해 대주교구에서 주교회의 열도록.
  - 사제의 도덕에 관한 상세한 규정 도입 - 사제의 독신준수, 음주, 도박, 사냥, 상행위, 잦은 여인숙 출입, 밝고 화려한 옷차림 등이 금지.
  - 알비파와 카타리파, 피오레의 요아킴 단죄.
  - 이단혐의자 종교재판소 설치, 처리.
  - 최종 항소법원이 로마 교황법정이 되도록 함.
  - 면벌부 발행권한이 주교로 제한.

# 공의회 결정의 의미 및 핵심(1)

- 교회권력의 중앙집권화
  -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신앙의 규제와, 일탈과 무질서를 조직적으로 탄압하기 시작.
  - 사회의 재기독교화(re-Christianization) - 성직자 개혁, 이단제거, 십자군
  
- 속인의 삶과 신앙에 대한 교회의 통제 : 7성사 확립
  - 공의회의 규정 - 매해 고해, 성체성사 의무, 혼례에 대한 성직자 통제 강화
  - 교황과 주교의 허락 없는 설교 금지, 성직자의 사목 활동에 대한 엄격한 수준
  
- 타자화
  - 이단의 등장과 이단퇴치를 위한 세부지침 - 파문, 처벌, 재산 압수
  - 이단자 축출 위해 무기 든 주교에게 성전 참여 대가로 면죄
  - 이단자 이외의 다른 소외 집단에 대한 타자화
  - 기독교도와 이교도 혼합 근절 위해 독특한 복장 착용
  - '치욕의 뱀지' 유대인 원형배지, 창년 매듭 끈, 문둥병자 방울 등
  - 유대인 관직 보유 금지, 고리대금업 종사 금지, 부활절 주간 야간통행금지
  - 14세기에는 유대인이 서유럽 각국에서 국외로 추방되기 시작하는 한편, 유대인을 격리하기 위한 게토라는 강제격리지구 형성. 유대인에 대한 집단적인 학살(pogrom)이 시작되어 유대인에 대한 박해가 새로운 국면진입.

## 공의회 결정의 의미 및 핵심(2)

- 제4차 라테란 공의회 종교재판(*inquisitio*) 과정 제도화
  - 이전의 주교나 영주 주관하는 신명재판, 결투재판, 무죄선서재판 등 공동체 스스로의 규제에서 새로운 제도인 종교재판 도입
  - 개인 고발 없어도 법적 조치 들어가는 관례 도입, 교회 당국 심문, 판결
  - 2명의 목격자 증언이나 자백에 의해서만 유죄판결.
  - 고문이 재판 제도 효과적 운영 위해 합법적 절차. (13세기-18세기)
  - 고해가 속인 영적 생활 통제와 핵심 수단이 된 것처럼 고문이 국가가 법과 질서 강요하는 중요한 수단, 소외 집단에 대한 당국의 박해 용이
  
- 중앙집권적 교황군주국 출현하는 시기와 같은 시기에 등장
  - 법적 권위가 공동체와 신민에게서 중앙집권적 권력으로 이동하는 시기
  - 이단은 공동체 자치와 집단 가치 추구했으므로 탄압 지식인 관료층의 등장의 한 결과 : 민중에게 이성, 법률, 통일성 강조.
  - 탄압 받는 집단의 공통은 성(性)문제 : 성직자독신, 결혼의 교회 성사, 고해성사, 매춘부, 동성애자 등 규정 (이단자는 성적 방탕, 남색, 문둥병 성문란의 징벌, 유대인은 기독교 처녀 신도 탐하는 사탄의 하수인)
  
- 새로운 형태의 탄압사회 형성 - 교회와 국가는 중세 초의 참회, 용서, 신명재판, 공동체적 제재의 이념에서 박해와 처형, 고립과 격리의 정책으로 전환

# 교황군주제의 정비

- 최종 항소법원으로서의 교황청 법정
  - 중앙집권화된 사법권의 발전
  - 교회와 세속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에 대해 교회법 보편 적용
  
- 교황 사절(Papal Legate) 활용
  - 교황 사절 로마로부터 파견 혹은 현지 고위 성직자에게 사절의 직책 부여
  - 교황의 사절을 통해 교황권 이 전 유럽에 효과적으로 확산되게 됨.
  
- 로마의 행정조직 정비
  - 교황청 문서국(chancery)이 큰역할
  - 문서 위조 방지, 일련의 문서작성법 및 문서 기록의 틀 고안
  - 12세기 이후의 교황청 관련 문서 보존
  
- 새로운 수입원 필요
  - 기구확대 및 업무에 필요한 경비 충당 위한 수입원 확보
  - 교황령을 통한 수입, 베드로의 펜스(Peter's Pence) 매년 교황에게 지불
  - 봉신들의 조공 - 13세기 말, 포르투갈, 카스티야, 아라곤, 시칠리아, 잉글랜드
  - 13세기부터 사제들로부터 소득세 징수 - 십자군 경비 조달 수단에서 기원, 사제들의 소득의 십일조 요구, 세속군주와 갈등의 주요 요인

# 중세의 신앙

- 중세 기독교의 영적 고민
  - 중세 교회가 설정한 신앙의 요구들은 기독교인들에게 상당한 의무 부과
  - 교회가 마련한 프로그램들은 독자적인 힘으로 성취하기에는 너무 버거움.
  - 신을 향한 여행은 불확실성이라는 지속적인 문제를 야기.
  - 개인의 행위, 혹은 개별적인 헌신에 대한 강조가 다시금 제기됨.
  - 구원의 방편으로 행위를 강조하는 종교적 환경이 반펠라기우스주의 낡음.
  - 기독교인의 삶의 진행과정에서 어떠한 행위나 단계를 제공하는 것을 통해 중세 기독교의 독특한 형태를 마련함. 이것이 바로 칠성사의 제정이다.
  
- 칠성사(Seven Sacraments)의 제정
  - 세례, 견진, 신품, 고백, 성찬, 혼인, 종부성사
  - 12세기 말에 7개가 확정되어(이때 왕의 대관식이 성사에서 빠짐) 종교개혁 때까지 지속되고, 가톨릭종교회의(트렌트공의회)에서 재확인됨.
  
- 칠성사의 기능
  - 기독교 공동체의 멤버심을 확증하고 기독교인으로서 삶을 증언
  - 각 단계에서 영적인 발전 과정을 보여줌.
  -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구원의 여정을 교회가 기획하고 보증하는 것으로 기능함.

# 칠성사

- 세례 (Baptism)
  - 출생 직후 행함. 원죄를 씻어주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얻음.
  - 비록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개인이 교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는 행위.
  - 세례는 구원에 있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사제가 아니더라도 비상시에는 누구나 행할 수 있었다(세례받지 않고 죽은 영아는 림보에 간다고 믿음).
  
- 견진성사(Confirmation)
  - 주교에 의해서만 행해진다. 일반적으로 5-7세 사이에 행해지는 것.
  
- 종부성사(Extreme Unction)
  - 모든 기독교인들이 받기 원하는 것으로 죽음을 앞두고 신앙을 확증하는 것.
  - 이 성사를 거치면 적어도 연옥에는 들어갈 수 있다.
  
- 출생과 죽음 사이에 개인차에 따라 몇 가지 성사가 포함.
  - 성직의 계(Holy orders)를 받는 자들은 신품성사
  - 결혼하는 자들은 혼인성사(Matrimony) - 두 가지 의미. 성사에 포함되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의 가나 혼인잔치 참여와,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.
  
- 고백성사(Confession)와 성체성사(Eucharist)는 일상에 대한 영향 강화



# 고백성사와 성체성사

- 제4차 라테란공의회 법령
  - 적어도 일년에 한 차례 모든 기독교인들은 교구 사제에게 고해를 해야 함.
  - 적어도 부활절에는 한 차례 성찬에 참여해야 함.
  - 그렇지 않을 경우 교회로부터 추방되고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게 됨.
  
- 미사에서 성체의 축성 행위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됨.
  - 최후의 만찬의 그리스도의 선포를 재언급하여 구속의 희생을 재현하는 행위.
  - 이 재현의 행위는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에 의해 행해지는 것으로 그의 권세가 축성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지 사제의 특성이나 자격 유무가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님.
  - 의식이 바르게 행해지기만 하면 효력 가짐(사효론 *ex opere operato*) cf. 인효론 (*ex opere operantis*)
  - 신을 만드는 자로서(God-maker) 사제권에 대한 과장이 중세말 ‘반성직주의’ 낡음
  - 축성된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성스런 몸과 피(Corpus Christi)라는 것이 중세말 종교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.
  
- 성찬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 - 죄의 고백과 사면을 통해서 얻게 되는 정화
  - 고백과 사면 역시 성직자의 권세를 높여주는 성사(sacrament)로 인식.
  - 범죄의 결과: 죄(*culpa*)와 벌(*pena*)이 발생. 죄는 사제가 사면을 선포하여 없애나 벌은 사제가 부과한 참회고행을 해야 사라짐(이 땅에서 채우지 못하면 연옥에서).

# 중보의 매개 - 성인과 연옥

- 사후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
  - 그리스도가 희망, 중세 내내 그리스도 중심의 헌신이 일반적.
  - 하지만 그리스도는 너무 멀다고 느끼고, 보다 인간적인 중보자가 필요하다고 느낌.
  - 성인숭배를 촉진, 성인들은 신 앞에서 신자들을 변호하고 기적 행할 수 있는 자들.
  - 성인에 대한 기준과 정의는 불명확, 다만 명백하게 탁월한 기독교인들이 기적이거나 다른 신적 증거들에 의해 그들의 신앙이 확증될 경우 성인이 될 수 있음.
  - 성인숭배가 중세말 가톨릭의 중요한 특성의 하나로 됨.
  
- 중세 기독교에 던져진 질문: 사후에 무슨 일이 생기는가?
  - 12, 3세기에 이 문제에 대한 답변들이 진화
  - 1200년경까지는 선택은 오직 천국과 지옥 뿐.
  - 어느 시점에 모든 사람이 즉시 구원받는 것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다양한 사고들이 유입되기 시작. 즉, 사후 일정한 기간의 정화(purification)의 기간을 거쳐 천국에 간다는 개념.
  - 속인에 대한 종교적 개념의 변화에 기인.
  - 이전까지는 대부분의 속인들은 자동적으로 심판 받고, 오직 수도사, 수녀, 성인들만 천국을 채울 것이라는 인식. 하지만 1300년에 이르러 이러한 인식의 변화시작.
  - 속인의 종교성-제4차 라테란 공의회에서 결혼한 속인들의 구원 가능성까지 인정.
  - 연옥(Purgatory)는 제3의 대안으로서 정의하기 어려운 존재형태로서 등장.



# 연옥 교리의 진화

- 제4차 라테란 공의회에서 트렌트 공의회(1215-1515) 사이에 정의의 진화
  - 1254년 교황 이노센트4세에 의해 공식적으로 논의.
  - 1274년 라틴기독교와 동방기독교의 통합 논의 과정에서 공식적인 신앙고백으로서 연옥이 나타나 비잔틴 황제 마이클 8세에게 제출됨(리용 공의회).
  - 1437년에도 피렌체 공의회에서 재천명됨.
  
- 전통의 종교(Traditional Religion), 대중의 종교(Popular Religion)
  - 대중들의 삶 속에 먼저 광범위하게 퍼진 개념들이 제도 교회가 수용
  - 전통 형성의 주체로서 교회의 관념. ‘기독교’라고 정체화 할 수 있는 믿음의 정의를 유효하게 하는 힘, 정의를 만들고 추인, 결정하는 총체적 힘이 교회에 있음을 선포.
  
- 교회의 권세가 내포하는 갈등의 핵심 - 사제의 권능은 어디까지인가?
  - 그레고리 7세의 개혁이 낳은 것 - 사제와 속인의 분리, 사제의 신성화 낳음.
  - 1215년에 이르러 사제의 관념이 발전하여 초인적인 사제상 구현.
  - 죄의 사면을 통제하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.
  - 만약 사제가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재현하고 그의 권능을 실현한다면 (특히 성체성사에서) 사제를 실제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?
  - 신품성사 자체가 하나의 화체(사제를 신성한 몸으로 만드는)가 아닌가?
  - 정통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나 그들은 사제를 왕보다 위, 천사 아래의 신분 강조.

# 천국행의 또 다른 도우미 - 면벌부

- 칠성사만으로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중세인들의 구원과 심판의 문제
  - 영혼의 구원의 불확실성에 사로잡힌 이들을 보다 안전한 구원의 길을 담보하는 종교적 이정표 제시 필요.
  - 면벌부는 전통의 종교, 대중의 종교를 나타내는 극적인 예. 칠성사에 포함되지 않는 성사의 엄수로 충족할 수 없는 구원의 요구에, 대중들의 필요에 대한 교회의 수용이라는 측면 - 면벌의 시행과 이론적 정립은 대중 종교의 집단 심성의 표현. 시작은 교황에서, 발전은 대중의 열망에서, 쌍방향의 관점
  
- 십자군과 면벌부
  - 고해신부가 부과한 참회고행 없이 보속(satisfaction) 할 수 있는 것 - 면벌증서
  - 초기에는 금전 거래 아닌 십자군 전쟁에 참가하는 군인들에게 수여. 참회고행에 버금가는 행위인 예루살렘 성지순례나 십자군 원정 등 어려운 일에만 발부
  - 우르반 2세의 면벌부 - 원시적 형태, 면벌부 핵심인 '공로의 보고' 개념 없다.
  - 12세기 <롤랑의 노래>에 '전쟁에서 죽는 자들은 '신성한 순교자들'이며, '가장 높은 천국에 앉게 될 것' 선포. 초기 사상은 가장 안전하게 천국에 갈 수 있는 통행권.
  
- 십자군 이후 면벌부의 관념 변화
  - 엄격한 참회의 면제 강조하는 *relaxatione, remissione*에서 면벌 수여하는 교회의 관용을 강조하는 *indulgentia*로 용어 정착. 십자군 뿐 아니라 점차로 라틴 기독교에 유익이 되는 모든 행위에 면벌부 발급.

# 면벌부의 진화 - 공로의 보고

- 대중에서 대학으로 - 학문적 논의
  - 롬바르드의 <전거집>, 그라티안의 <교령집> 면벌부의 유익과 수여조건 세분화.
  - 신학자나 교회법학자 모두 참회고행 대체할 대체제 필요성 공감.
  - 13세기 초 파리 대학의 총장 크레모나의 프라에포시티누스는 면벌부가 ‘어떤 반대 토론도 허용되지 않는 교회의 보편적인 전통’이라고 천명.
  
- 성가대장 피에르(d.1179)
  - ‘연옥’이라는 명사 처음 고안한 것으로 알려짐.
  - 면벌부 조건 정확하게 제시 “면벌부는 (1)교회의 권위, (2) 성도의 교통, (3) 참회의 노력과 헌신이라는 세 조건이 갖춰질 때 수여.”
  - 면벌부 수여권위 - 마태복음 16:18 사도계승, 교황과 주교만이 면벌부 수여 (제4차 라테란 공의회에서 대수도원장 면벌부 발급 권한 중단)
  - 중세의 참회규정서는 죄에 따라 1년, 3년, 7년 금식토록 참회고행 규정.
  - 중범죄는 일생동안의 참회로 충족 불가.
  - 피에르는 그리스도의 수난과 순교자의 고난을 통해 쌓인 교회의 잉여의 공로가 대도를 통해 연약한 자들을 위해 지불 가능하다고 봄.
  
- 공로의 보고(Treasury of Merits)
  - 1343년 교황 클레멘트 6세가 공로의 보고 인정하면서 면벌부 이론 역사적 정점

# 면벌부의 진화 - 망자들을 위한 면벌부

- 공로의 보고 이후 폭발적인 성장
  - 면벌부 남용의 직접 책임은 교황에게, 면벌교리는 대중들의 욕구를 정당화하는 쪽으로 발전.
  - 오남용의 단초 - 망자들을 위한 면벌부 매매.
  
- 망자들을 위한 면벌부 신학적 수용은 15세기부터.
  - 연옥 사상의 교리화와 궤를 같이 함.
  - 민중들 사이의 민간 신앙, 이를 종교적 착취의 수단으로 변질시킨 면벌수사들의 행태, 재정적인 요인들을 고려한 교회의 암묵적인 용인 등이 맞물려 이루어진 것.
  - 1476년 교황 식스투스 4세는 면벌부의 효력을 공식적으로 죽은 영혼에게까지 확대
  
- 중세인들의 종교 심성 속에서 본 면벌부 교리
  - 죽음과 심판은 실제적인 고민 - 이노센트3세 ‘인간존재의 비참함에 대하여’
  - 교회가 구원의 길로 제시한 성사 외에 안전하고 완전한 내세로의 여행의 자구책.
  - 표면 뒤에 있는 본질적인 것 - 중세 가톨릭 구원관의 한계 (전도서9:1)
  - 천국의 여정에서 ‘성사’와 ‘전통’이라는 권위 안내자로 배치. 구원의 가능성 높이는 ‘확률의 종교’ - 면벌부는 이런 종교적 심성 잘 반영하는 제도로 탄생, 확장.
  - 중세인들의 불안을 매개로 자라는 중세 종교의 전형. 중세 신학의 ‘불안한 고리’

# 중세 가톨릭 신앙의 본질

- 구원의 여정길을 고안하고 인도하는 핵심 - 교회
  - 가톨릭의 교회론 - ‘그리스도의 몸’으로서의 교회
  - 1302년 보니파키우스 8세 교황 “지극한 성스러움 *Unam sanctam*”
  - “우리가 믿고 붙잡고 고백할 신앙의 대상으로 오직 하나의 거룩하고, 보편적인 사도 교회가 있다.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믿고 단순하게 고백한다. 교회 밖에는 구원이나 죄 용서가 없다.”
  
- 1215년 제4차 라테란 공의회로 결정화된 것
  - 중세 교회가 교황절대군주제로 등장하면서 부과된 종교 교리의 종합
  - 위로부터 부과된 종교 - 교회의 개인에 대한 지배기제의 강화
  - 교회의 교리 및 신앙적인 타협과 타락의 시작
  -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대중의 요구를 수용, 타협
  - 라테란 공의회의 결과는 성공이자 타락의 시작
  
- 제4차 라테란 공의회를 통해 돌아보는 개혁의 본질
  - 교리의 강화인가? 실천적도덕의 개혁인가?
  - 위로부터의 개혁 (Reform in Head) vs. 아래로부터의 개혁 (Reform in Members)